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兩枚의 塔誌는 각기 統和二十三年乙巳(遼聖宗二十三年 高麗穆宗八年 서기一〇〇五年)과 正德三年戊辰(明武宗三年 朝鮮中宗三年 서기一五〇八年)에 五百餘年の 年差를 두고 「東邊塔」의 重建事實과 關係僧俗名을 記刻納塔한 것이 틀림 없으며 正德銘品은 정확하게 統和銘板의 크기와 體裁를 模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其二) 統和板에서 「佞(倒?)」 落治建」이라 하였으므로 이 塔의 創建年은 이보다 溯上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其二) 正德板에서 이 統和乙巳年을 初行에 옮기면서 「始造而後額落久矣」라 하여서 統和二十三年에 初建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其一) 統和板의 記錄을 正當한 것으로 보아서 兩枚가 모두 「治建」이나 「更建」 또는 「重建」된 사실을 傳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統和治建時에는 그 외에 一千佛의 造成과 祖堂 千佛堂 각 五間과 九間의 建立이 있었던 事實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寺主 以外에 助成徒衆 三百餘人中 第一坐史 大唯乃 副唯乃 千佛大匠 등의 職名과 僧名을 알 수 있는 것도 奇蹟하다. 또 正德板에서는 舍利五介의 奉安 사실과 施主 뿐 아니라 石手、供養主 등 徒衆 二百餘人의 參與를 傳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미루어 石造로 보이는 이 塔誌의 收藏塔은 그 規模가 相當한 크기의 것으로서 初建年代도 羅末麗初까지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統和年代에 이르러 倒落된 事由는 알 수 없으나 治建을 要하던 原因이 天變地異가 아니었다면 그로부터 初建까지엔 적어도 一世紀內외의 年數를 算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推定보다는 이들 塔誌의 出世가 불과 數年前임에 비추어 그 經緯와 所在地를 더듬어 原塔을 찾아내어야 될 것이다. 그 같은 努力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확실한 石塔例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現存石塔中 그 自體에 記銘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하더라도 羅麗의 塔誌例가 漸增되고 있으며 또 寺刹史料의 檢討에서 造塔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遺構도 더욱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塔誌兩枚는 重要한 金石文 資料일 뿐 아니라 塔婆研究를 위하여도 더욱 所重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八月六日)

註
 ① 拙稿：新羅塔誌石과 舍利壺(美術資料)第十輯 一九六七年二月刊 續金石遺文二十、永泰二年塔誌
 ② 「金石遺文」十七、八寶林寺石塔誌(南、北)

瑞山 龍賢里出土 金銅如來立像

李 殷 昌

一九六七年 가을에 忠淸南道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田一六番地에서 張有聲、鄭張鈺 兩氏에 의하여 金銅如來立像이 出土되었는데 今年 六月에 再收拾되었기에 紹介한다. (出土地點은 前號(九卷七號)에 소개한 百濟如來立像의 發見地點에서 東北 約十m.)

金銅如來立像은 臺座上에 正面直立한 小像이다. 銅造鍍金像이었으나 金色이 大部分 脫落되어 녹이 슬었다. 頭髮은 磨損으로 螺髮이었는데 또 素髮이었는데 仔細히 알 수 없고 肉髻가 높고 두렷하여 古格을 보인다. 耳朵는 長楕形으로 어깨 가까이 드리우고 있는데 右耳는 破損되었다. 顔面은 둥근 容貌다. 半月形의 眉線을 그리고 兩眼은 半開眼으로 柔和한 表情이 들어나고 있다. 鼻部와 口邊은 破損되었으나 그 輪郭으로 짐작되는 바 當時의



典型的인 樣式으로 鼻梁이 우뚝하고 口唇은 조고마한 모습으로 推測된다. 兩頰은 突出的 便으로 大邱調查 金銅如來立像①의 顔面과 恰似하니 當時의 佛像으로서는 特異한 表現이다. 脛部에는 三道가 없고 목 밑으로 裸部가 들어나 있다. 衣紋은 通肩衣로 兩臂에 걸쳐져 흘러내렸는데 兩袖部가 兩側으로 길게 垂下되었다. 그리고 또 목결이처럼 圓形을 그리고 다시 앞가슴에서 圓弧를 그리며 주름지며 兩脚部에 이르러서는 다시 縱으로 주름지다가 다시 橫으로 變格하여 주름지고 그 밑으로 裙衣의 자락이 발목을 덮고 있다. 곧 寧越 九來里 發見 金銅如來立像②의 衣紋에 恰似하다. 兩手는 通印인 與願施無畏로 典型的인 如來像의 手印을 하였다. 兩足은 裸足으로 五指를 모아 臺座에 整然하게 놓아 直立姿勢를 取하였다.

側面과 後面은 紋樣이 省略되었다. 그리고 後面은 凹部로 홈이 패이고 下部에 突起部가 있어 元來는 光背가 俱存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臺座는 紋樣이 없이 八角形바탕에 圓帶를 둘러 二層級을 形成한 받침에 다시 半圓球를 놓고 그 위에 圓形仰皿을 놓아 立像을 받고 있다. 佛像을 實測하였는바 그 數値는 다음과 같다.

- 總高 七·五 cm
- 佛身 ① 佛身高 五·五 cm ② 肩部幅 一·五 cm
- ③ 頭部高 二·〇 cm
- 臺座 ① 臺座底直徑 三·三 cm ② 臺座高 二·〇 cm ③ 上臺直徑 一·七 cm

註 ① 秦弘燮·「金銅如來立像과 菩薩立像」(考古美術 第四卷 第五號)
 ② 秦弘燮·「寧越發見 金銅如來立像」(考古美術 第三卷 十號)

至正元年銘 玉禪燈

文 明 大

高麗以前的 燈이 극히 적고 그 가운데도 年代가 확실한 在銘燈은 거

의 볼 수 없다. 다행하게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까지 알려진 이 계통의 在銘玉燈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방면 연구의 막중한 자료라 하겠다.

乳白色의 澄結한 색깔은 우아한 멋과 고상한 정취가 숨숨히 배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어두운 山寺의 法堂처럼에서 寂照하게 밝히고 있을 때의 이 玉燈을 쳐다 본다면 정말 투명하고 은은한 禪味와 風趣를 아낌 없이 맛 볼 것이다. 적은 주발만한 아담한 玉燈은 口緣部에 면해서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는 늦쇠의 고리가 곡선을 그리면서 멋있게 올라간다 — 建築物의 「아치」처럼 —

銘文은 고리와 고리를 이어서 一周의 橫書로 陰刻하였는데 거의 마멸되어 정성드러 읽지 않으면 관독하기 곤란하다.

至正元年辛巳四月日 禪源寺佛前于 施主

三韓國大夫人李氏 (字徑 一·〇—一·五 cm)

至正元年是 高麗 忠惠王 二年 A.D. 一三四一年이며 바로 辛巳年이다.

禪源寺는 江華島 禪源面 지리산에 있었던 절이라 생각된다. 禪源寺란 이름을 가진 寺院은 둘 뿐인데 하나는 미미한 小刹이라 이와 같은 在銘玉燈을 가진만한 寺刹은 아니다. 江華島 禪源寺는 고려 高宗 때 崔瑀가 創建하였다고 하며 忠烈王은 契丹의 침입을 피하여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한다. 그때 先代의 實錄들을 옮겨 두었다. ①

강력한 집권자가 창건하였고 王이 피난하였다는 사실은 이 절이 大刹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至正元年」이란 銘年은 崔瑀 때 보다 一세기나 後이지만 당시 最大의 寺刹에 이만한 品位있는 玉燈을 달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禪源」銘이 있는 銀入絲佛器가 이미

